Market Analyst 조병현
02-3770-3636 / byunghyun.cho@yuantakorea.com

[요약] Hi, Hydrogen

1.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수소 산업

- 지난 12월 유럽 그린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친황경 기조를 피력했던 유럽에서 수소 관련 정책들이 제시. 지난 6월 독일의 국가수소 전략에 이어 7월에는 EU가 수소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소를 활용할 것임을 천명

- 한국 정부는 한국 형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 19년 이후 진행된 일련의 환경 정책들은 수소의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코로나 사태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는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환경 관련 투자를 활용하려는 의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적 연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보임

2. 수소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

- 수소는 이를 활용하는 시점부터는 환경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 따라서 생산 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타 신재생 에너지의 동반 정착이 필수적

- 수소의 활용에 있어서는 연료전지 시장과 수소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음. 관련련 시장 모두 성장의 룸이 남아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

- 수소산업에 대해 정책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종목 별로는 높은 변동성에 직면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개연성도 존재

- 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특정 국가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역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 넓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수소 산업

지난 12월 유럽 그린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친환경 기조를 피력했던 유럽에서 최근 수소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6월 독일의 국가수소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이어 7월에는 유로존 차원의 수소 전략 로드맵이 발표됐다. 유로존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나 최근의 행보를 통해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소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 형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사실 최근 정책 발표에 수소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따로 강조된 것은 아니지만, 19년 이후 진행된 일련의 환경 정책들을 따라가다 보면 수소의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단 유럽과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도 수소 경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시도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 충격이 발생하면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유럽과 한국은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환경 관련 투자를 활용하려는 의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챠트1] 지난 해 발표된 수소 전략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산업 관련 주요 목표치. 단기간 내에 현 상황 대비 빠른 속도의 진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음

부문		정책 내용		
		현재(18년)	2022년	2040년
모빌리티	승용차(천대)	1.8	79	5,900
	버스(천대)	2대	2	60
	택시(천대)	–	–	120
	트럭(천대)	–	–	120
	자동차 합계(천대)	***1.8***	***81***	***6,200***
	충전소(개소)	32(20/7월)	310	1,200
에너지	발전용(GW)	0.3	1.5	15
	가정용(GW)	0.007	0.05	2.1
수소 공급량(Ton/연)		13	47	526
가격(원/Kg)		7,000~8,800	6,000	3,000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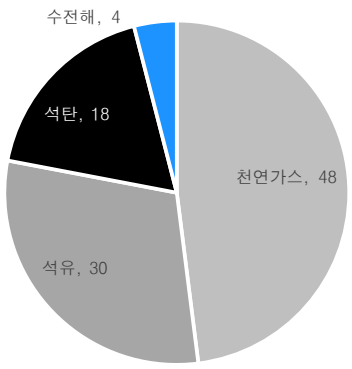
2. 수소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

수소는 존재하는 수소를 활용하는 시점부터는 친환경 에너지의 성격을 가지지만, 추출 방법까지 고려할 경우 아직까지 온전히 친환경 에너지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궁극적인 그린 수소의 활용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과 동행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각국 정부의 정책 플로우를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2020~2025년, 조금 길게는 2030년 이전에 수소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 및 수요 확대를 위한 투자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그린 뉴딜 등의 정책을 통해 역시 빠르고 집중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민간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도 보다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소산업에 대해 정책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별 종목단에서 접근할 경우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직면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특정 국가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역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 넓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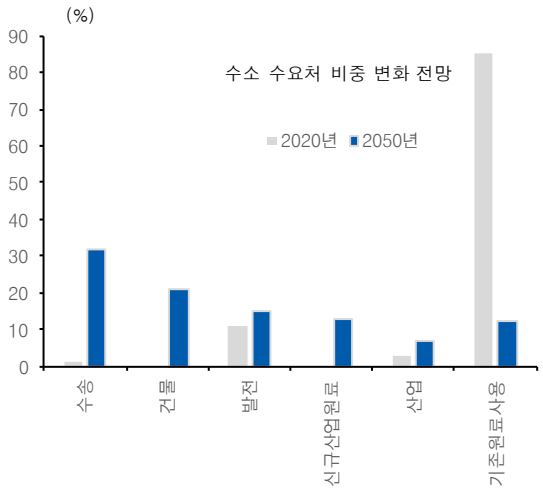
'본 자료는 금일(7/21)발간된 'Hi, Hydrogen'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챠트2] 전세계적으로도 진정한 의미이 친환경 에너지라 볼 수 있는 수소의 비중은 4%에 불과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챠트3] 아직까지는 산업용 원료로 대부분 소모되는 수소지만 향후에는 그 활용의 폭이 매우 넓어 질 것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